

2013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 : 2014. 1. 24 (금) 15:00 ~

2. 장소 :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

3. 참석자 : 5명

서판길(위원장), 정무영, 황열순, 강동우, 임영현

※ 배웅재 (신임 총학생회장) 참관

4. 불참자 : 4명 (박주현, 권혁무, 정한모, 오용경)

5. 안건 : 2014학년도 등록금 심의

6. 회의내용 :

1)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

- 재적인원 총 9명 중 5명 출석으로 성원이 되어 2013학년도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함

2) 안건 설명

- 예산정책팀장이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의 인상요인과 고려사항 및 등록금 책정(안)의 세부 내용을 설명함
 - (1안) 학부 수업료 인하(0.3%), 대학원 수업료 동결
 - (2안) 등록금 동결(0%)

3) 안건 심의

- 학교 측(위원장) : 유니스트는 성장하고 있는 대학이라서 등록금 인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.

- 그러나, 전반적인 정부방침을 따르고, 학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장님과 협의하여 대학 등록금을 동결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
- 학생 측 : 등록금 책정(안)의 인상요인에서 학생증가에 따른 학비감면, 장학금 등 학생경비 증가 200억에서 19억 증가의 기준이 무엇인지
- 학교 측(예산정책팀장) : 학생장학금과 학생경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
- 전문위원 측(황열순) : 유니스트는 장학혜택이 많은 학교이므로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관한 저항감이 크지 않고, 2만원 정도의 인하가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
- 따라서 유니스트처럼 일반 종합대학과 다른 성격의 대학은 등록금 차액이 크지 않을 경우(0.3%) 차라리 동결을 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
- 학생 측 :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집행되는 예산 내역 자료 제공을 요구함
- 학교 측 : 학생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의문점을 해결해 줄 충분한 자료 제공 요구에 동의함
- 학생 측 : 학생입장에서 0.3% 인하는 학교측이 생색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계산법이라면 학부, 대학원 모두 동결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
- 다만 등록금 인하가 체감상으로 학생들이 학교측이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 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가 필요함.
- 학교 측(예산정책팀장) : 등록금 동결과 인하는 실제로 많은 차이는 없지만 동결할 경우 정부에 국가 장학금을 제안할 수 없음을 설명함
- 참석자 전원 : 2014학년도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 신청 조건을 감안 하여 (1안)과 같이 등록금을 일부 인하(대학원은 동결) 하는 것으로 결정함

4)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

-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는 금번 회의로 종료하기로 하고 참석 위원 전원의 동의로 폐회 선언

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.

2014. 1. 24

위원장 서 판 길

(서명)

위 원 정 무 영

(서명)

위 원 황 열 순

(서명)

위 원 강 동 우

(서명)

위 원 임 영 현

(서명)

참 관 배 응 재

(서명)

작성자 간사 예산정책팀 최용준 (서명)